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2월 13일
제1883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도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루카 6,20-21)



〈산상설교〉, 프라 안젤리코, 산 마르코 미술관, 피렌체, 이탈리아

연중 제6주일 (다해)

제 1 독서 예레 17,5-8 |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이는 복되다.

화답송 시편 1,1-2.3.4와 6 |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제 2 독서 1코린 15,12.16-20 |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을 것입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복음 루카 6,17.20-26 |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그때에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와

¹⁷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²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²¹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²²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²³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²⁴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²⁵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²⁶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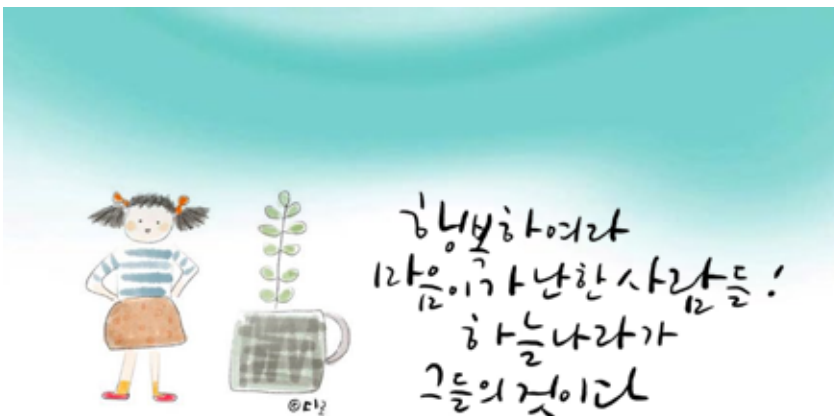
†복음 묵상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동경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줄까요? 많은 사람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유함이 행복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말을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가뜰이나 힘들어진 요즘 같은 시기에 솔직히 돈만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은 도통 만족을 모르는 듯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있어야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인지,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은 대개 지금 자신이 보유한 자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앞으로 자산이 더 많아지면 그때 가서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으로 행복해지는 때가 정말 오기는 할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행복도 아이러니하게 돈과 관련됩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로 흐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히려 가난하고 굶주리면 행복하지만, 부유하고 배부르면 불행하다고 하십니다. ‘가난은 불행, 부유함은 행복’이라는 공식을 뒤집는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하여 추구해야 할 대상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재설정해 줍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고 하느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나는 무엇을 더 신뢰하고 무엇에 더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신뢰하십니까? 돈의 힘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힘입니까? 도무지 만족을 주지 못하는 돈보다, 존재만으로 충만하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 행복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1독서가 우리에게 주는 확신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정천 사도 요한 신부〉



성화 해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루카 16,20)

도미니코수도회 수사였던 프라 안젤리코(Fra Angelico, 1387-1455)가 1440년경에 그린 ‘산상 설교’는 맑고 순수한 색채와 간결하고 정제된 형태와 구도를 통해 그리스도교 정신을 더욱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햇빛은 바위 모습으로 묘사된 산 중턱 중앙에 앉아 있고, 그 주위에는 열두 제자들이 원형으로 둘러앉아 있다.



〈산상설교〉, 프라 안젤리코

이것이 바로 영적 가난이다.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영적 가난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왼손에 두루마리를 접어 들고 오른손을 높이 들어 하늘을 가리키며 지상의 행복보다는 천상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전하고 있고, 제자들은 시선을 모으고 입을 다문 채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입은 파스텔 톤 옷에 있는 주름은 바위산의 능선들과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큰 원을 형성하고 있어 화면 전체가 역동적이고 리듬감이 있다.

이 그림은 밝고 화사하면서도 고요하고 거룩한 분위기가 결들여져 있기에 그림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중심의 가치관보다는 하느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도록 오묘하게 이끌고 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느낌으로 전해주고 있다.

〈손용환 신부의 성경 미술관〉

가슴 아파하지 말고 나누며 살다 가자.

故 김수환 추기경

버리고 비우면
또 채워지는 것이 있으리니
나누며 살다 가자.

누구를 미워도,
누구를 원망도 하지 말자.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도,
적게 가졌다고 불행한 것도 아닌 세상살이

재물 부자이면 걱정이 한 짐이요,
마음 부자이면 행복이 한 짐인 것을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은
마음 닦는 것과 복 지은 것뿐이랴오.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날도 많지 않은데
누군가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날도 많지 않은데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된다고
가슴 아파하며 살지 말자.

버리고 비우면
또 채워지는 것이 있으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가자.

....

기도하시라.
기도는 녹슨 쇠덩이도 녹이며
천 년 암흑동굴의 어둠을 없애는
한줄기 빛이랴오.
주먹을 불끈 쥐기보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가 더 강하다오.

사랑하시라.
소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오.
진정한 사랑은
이해, 관용, 포용, 동화,
자기 낮춤이 선행된다오.

내가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칠십 년 걸렸다오.

성소후원회 2022년 여름캠프

알링턴 교구 성소국 주최로 남녀 고등학생들에게 신앙인으로서의 생활과 기도하는 법을 경험하게 하는 4박 5일 여름캠프에 학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등학교 남학생들을 위한

Quo Vadis Summer Camp

July 10-14, 2022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위한

FIAT Summer Camp

July 17-21, 2022

장소: Mount St. Mary's University and Seminary, Maryland

- 현재 9학년 ~ 12학년 고등학생만 신청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4월 13일에 참가자를 발표합니다.
- 신청 기간 : 3월 한달 동안
- 참가자 등록 마감: May 9 (캠프 참가자로 당첨된 학생)
- 참가비: \$250 (성소후원회 전액 장학금 지급)

1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2월 13일(일) 11:40 (B-3,4)

2 텃밭 가꾸기 세미나(교육부)

- 일시 : 2월 13일(일) 오전 11:30
- 장소 : 친교실 (A-1,2)
- 주제 : 실습을 위주로 한 텃밭 가꾸기
- 감사 : 원응식 요셉(농학박사)

3 2022년도 바오로딸 성경학교 신입생 추가 모집

- 모집 과정 : 신규약 입문 2년 과정(우편통신/이러닝)
- 신청 마감 : 2월 28일까지 연장
- 문의 : 안윤민 바실리오 (571) 275-0691

4 재의 수요일 미사 안내

- 일시 : 3월 2일(수) 오전 10:30 십자가의 길, 11시 미사, 오후 7:30 미사
미사 중에 재의 예식이 있습니다.
- 지난 해 성지주일에 나누어 드린 성지가지를 2월 27일까지 본당 입구에 마련된 성지가지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5 가톨릭 성서모임 2022년 봄학기 그룹원 모집

성서를 함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생활화할 그룹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 대상 : 청년(19세-39세) / 어버이(40세 이상)
- 공부 기간 : 15주(주 1회 2시간)
- 공부 과정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 신청 방법 : 청년 - bit.ly/spc2022s
어버이 - bit.ly/cblm2022s
- 신청 마감 : 22년 2월 13일까지
- 등록비 : \$30(해설서 구입 시 +\$20-\$25)
- 문의 : 청년 - 강동철 로베르도 (571) 432-9950
어버이 - 신상희 글라라 (703) 399-4768
이메일 - spccblm@gmail.com

6 주님 수난 40일 간의 여정

- 주님 수난을 묵상하는 사순시기를 준비하며 주님 수난 40일간의 여정에 함께 해주실 **십자가 복사와 초 복사**를 신청받습니다.
-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십자가와 초 복사는 되도록 팀을 이루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게시판**에 있습니다.
- 주님 수난 40일간의 여정은 매일 아침 5:30에 **십자가의 길과 미사**로 봉헌됩니다.

7 2월 월례회의 취소 안내

- 단체부와 안나회, 하상회 2월 월례회의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취소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8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일미사에 주보를 보시고 자리에 놓아 두지 마세요. 주보를 보신 후 꼭 가져가 주세요.
- 화장실과 세면장을 우리 집처럼 사용해 주세요.
- 장소와 물건 사용 후 꼭 원 위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 약정

매년 사순 시기 동안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를 약정받습니다. 2022년 우리 본당에 할당된 금액은 **\$161,000**입니다.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청하며, 2월 19일과 20일에 약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arlingtondiocese.org/bla>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이사야서 53,5)

3월 3일(목) - 4월 13일(수)

월요일-토요일(오전 5:30) 십자가의 길과 미사

주일 오후 3시 십자가의 길 예식

+ 성 목요일(4월 14일) 주님 만찬 미사 오후 8시

+ 성 금요일(4월 15일) 십자가의 길 오후 3시
주님 수난 예식 오후 8시

+ 성 토요일(4월 16일) 파스카 성야 미사 오후 8시

코로나19 본당 수칙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CDC에서는 오미크론에 천 마스크나 덴탈용 마스크는 면역력이 떨어지므로 KF 94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당 미사 참여와 모임시에 KF 94를 써주시고, 평일 미사에는 지정된 자리에만 앉아 주세요.

1. 미사 참석자는 꼭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2. 성당에 들어갈 때는 꼭 **손 소독**을 해야 합니다.
3. 평일미사 때는 **표시된 좌석**에 앉아 주세요.
4. **회합을 할 때에 마스크를 꼭 쓰고** 합니다.
5. 회합 장소는 사전에 사무실과 협의합니다.

세계 결혼 기념일

매년 2월 둘째 주일은 세계 결혼 기념일입니다. 모든 부부가 성체성사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은총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매를 맺으며, 자녀들과 세상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랑의 모범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부의 기도

-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인성사로 저희를 맺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 이제 저희가 혼인 서약을 되새기며 청하오니 저희 부부가 그 서약을 따라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잘살 때나 못살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게 하소서.
- 또 청하오니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는 저희 부부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2월 6일(연중 제5주일)

주일헌금	\$ 5,340.00
교무금	\$ 8,600.00
교무금(신용카드)	\$ 3,060.00
감사 헌금	\$ 710.00
2차 헌금	\$ 2,393.00
온라인 봉헌	\$ 12,290.00
합계	\$ 32,393.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 2월 17일(목) 오후 5:00-6:00
- 2월 18일(금) 저녁 8:00-9:00
- 2월 20일(일) 오전 6:00-7:00

1. 신부님 주일 강론
2. 특강 : 윤원진 비안네 신부
“위대한 성인들”(28)
보나벤투라 성인-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table border="1"> <tr> <th>화, 금</th> <th>수</th> </tr> <tr> <td>• 6:00 AM</td> <td>• 7:30 PM</td> </tr> <tr> <td>• 7:30 PM</td> <td>• 11:00 AM</td> </tr> </table>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7:30 PM	• 11:00 AM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7:30 PM	• 11:00 AM						